

2021년 01월 27일

KIWOOM 장중 시황 및 이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Analyst 서상영 02) 3787-5241 ehdwl@kiwoom.com

한국 증시, MS, 애플, 테슬라 실적 발표, FOMC

한국 증시: 경기 회복 Vs. 차익 실현, 중국 이슈로 장중 변동성 확대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물 출회되며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특히 미 증시 장중과 마감 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은 여파로 관련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

그렇지만 IMF의 글로벌 성장률 상향 조정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가 확산되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며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 더불어 J&J의 백신과 일라이릴리 치료제에 대한 기대 심리도 향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 효과.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수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지며 대형주 중심으로 장중 상승폭 확대.

시간이 지나며 아시아 시장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을 축소하자 한국 증시는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임.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 중국 인민은행이 이틀 연속 유동성을 회수 하자 중국의 시보금리가 24bp 급등하는 등 중국발 악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물론 미-중 갈등과 중국의 긴축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지만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욕구를 강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음

IMF 글로벌 성장률 상향 조정

IMF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지난 10월 예측치 보다 0.3%p 상향 된 5.5%로 전망하는 등 낙관적으로 변화. 그러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이와 함께 IMF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간의 경쟁 결과 및 코로나 종식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 더불어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될 경우 정책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

국가	2021	변화율	2022	변화율
글로벌	5.5%	+0.3%	4.2%	0.0%
선진국	4.3%	+0.4%	3.1%	+0.2%
미국	5.1%	+2.0%	2.5%	-0.4%
유로존	4.2%	-1.0%	3.6%	+0.5%
일본	3.1%	+0.8%	2.4%	+0.7%
영국	4.5%	-1.4%	5.0%	+1.8%
신흥국	6.3%	+0.3%	5.0%	-0.1%
아시아 신흥국	8.3%	+0.3%	5.9%	-0.4%
한국	3.1%	+0.2%	2.9%	-0.2%
중국	8.1%	-0.1%	5.6%	-0.2%

출처: IMF,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 증시: MS, AMD 등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기업들

마이크로 소프트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3.7% 상승 중.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 가속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MS는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모든 기업과 모든 산업을 휩쓸고 있는 것은 디지털 혁신 물결의 시작” 이라고 주장하며 클라우드 수익이 전년 대비 34% 급증한데 이어 올해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이 영향으로 아마존이 1.5%이 강세를 보였으며 링크드인 광고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페이스북이 1.5% 상승했으며 애플도 1.3% 상승하는 등 대형 기술주가 시간 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음. 개인용 전자제품 및 산업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이번 실적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객들이 잠재적인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칩을 주문했다는 분석도 있어 시간 외로 2% 하락 중. AMD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매출 출회되며 1% 하락하는 등 여타 종목은 시간 외로 하락 중.

대체로 미국 시간 외 선물 시장은 차익 실현과 기대가 충돌하며 종목 및 업종 차별화 진행

미 증시: 애플, 테슬라 실적 발표 등

애플 실적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재택 근무 추세에 따라 맥북 및 아이패드 판매 급증 가능성과 함께 아이폰 12 판매 호조에 기대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 한편, 유일한 하락 요인으로는 선반영을 꼽고 있는데 가이던스를 재공 한다면 전일 3M 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 최근 21일에는 모건스탠리가 22일에는 코웨이 25일에는 웹부시가 애플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했음.

테슬라는 지난 2020년 9개월 동안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약 1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 했음. 테슬라 약세론자들은 이러한 신용 판매는 결국 끝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이익에서 이를 제외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물론 긍정론자들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자체 전기차를 출시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탄소 배출권 수익이 감소 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제가 더 엄격 해지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

그런 가운데 약세론자들 긍정론자들 면밀하게 주시할 부분은 2021년 전기차 판매 대수. 시장에서는 약 80만대를 전망하고 있음 이는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74만대에서 증가한 수치. 결국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는 결과 보다는 탄소배출권 전망, 2021년 판매 대수에 따라 변화가 확대 될 듯. 지난 15일에는 웹부시가, 19일에는 제프 리스가, 20일에는 오픈하이머가, 25일에는 로버트 더불유 베어드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했음

보잉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보잉 737맥스 관련 내용, 지난 번 컨퍼런스에서 언급 했던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에 주목할 듯. 지난 20일 베렌베르크는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을 상향조정 했음.

라스베가스 샌즈는 전일 CEO를 교체하는 등 변화를 보였음. 그런 가운데 맞이하는 실적 발표에서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 및 향후 전망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컨택트 관련 종목들의 변화가 예상

장 시작 전: AT&T, 에봇, 보잉, 앤섬, ADP, 노퍽크, 프로그래시브, 블랙스톤, 제너럴다이나믹, 텍스트론

장 마감 후: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서비스나우, 스트라이커, 램리서치, 라스베가스 샌즈, 크리

미 증시: 최근 연준 위원들 발언과 FOMC

내일 새벽 FOMC가 있으나 최근 초점이 백신 보급과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부양책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번에도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더 나아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회복에 대한 비관과 낙관 어떤 것도 이야기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성명서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예상.

한편, 최근 연준 위원들 중 일부는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물론 파월 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가능성을 완화 시키는 발언을 했었음. 특히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경기 회복 관련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고 언급해 시장 우려를 완화. 이를 감안 내일 새벽 기자회견에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내용을 포함 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

양적완화 관련 연준위원들의 발언

파월 연준의장: 1/14, 자산 매입의 축소 하기 전에 경기 회복이 선행 되어야 하며 실제 진행될 경우 시장과 소통할 것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1/08, 채권 매입 속도는 올해에도 유지 할 것으로 기대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1/13, 현재 채권 매입 속도는 상당기간 적절하게 유지 될 것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1/12, 경제가 더 탄탄해질 때까지 채권 매입은 지속해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1/12, 경제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이면 통화정책 변경 해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평균 물가가 2% 올라가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 정책 유지해야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1/13, 인플레이 압력 높아지고 있으나 테이퍼링 논의 시기상조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1/12, 인플레이 압력 높아질 수 있으나 현 정책 기조 유지 해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1/15, 물가 공격적으로 2% 넘을 가능성 크지 않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1/7,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채권 매입 축소 논의 시작 할 것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1/11, 강력한 경기회복 등이 분명하게 진행 되면 정책 변경도 고민해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1/11,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더 크면 자산 매입 축소 지지할 것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 1/11 올해 연말이면 테이퍼링 논의 시작 해야 할 것